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6 호 3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 6 호 (220)
1963년 3월 (하)

차 례

—문 답 학 습—

공산주의자와 혁명적 락관주의

1

혁명적 락관주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혁명적 락관주의란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와 그의 실현 방도를 확신하는 혁명 정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신이 없이 자기들 앞에 나선 간고한 혁명 위업을 성취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 계급과 전체 피착취 근로 대중을 령도하여 부르죠아지를 타도해야 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고 온갖 형태의 착취 관계를 청산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나아가서 인류의 리상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부르죠아지를 비롯한 모든 착취 계급과의 마지막 판가리 싸움이며, 생활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전변을 의미하는 세기적인 로정이다. 그만큼 이 로정은 복잡하며 간고하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로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곤난과 신고를 이겨낼 수 있는 불굴의 의지와 어떠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혁명적 락관주의를 가질 때만이 자기에게 부과된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력사 발전의 새로운 력량으로서, 새로운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처음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작은 력량이였으며 비할 바 없이 강대한 적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였다. 따라서 맑스와 엥겔스가 그 위업을 시작하던 때로부터, 레닌과 볼쉐위크당이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하던 때로부터, 또한 항일 빨찌산들이 조선 혁명을 시작하던 때로부터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미래와 승리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도 보귀한 사상적 무기의 하나이였다. 만일 그들이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승리의 시대를 믿지 않았다면 강대한 적과의 싸움을 도저히 지탱해 낼 수 없었을 것이며 구경은 혁명에서 물러 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 이후 공산주의 운동은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으며 우리 나라 북반부에 있어서도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기치는 확고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도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의 남쪽 땅을 강점한 세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 미제와 직접 맞서서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공화국 북반부를 무력으로 정복하려 하며 지주 부르죠아 제도를 복귀하려는 침략 기도를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 적들은 우리 내부에 침습하여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말살하려 하며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파괴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책동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적과의 간고한 투쟁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더 어려운 투쟁 과업들이 남아 있다.

우리 혁명은 과거에도 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승리하여 왔지만 앞으로도 결코 우여 곡절이 없이 전진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시적 실패도 있을 수 있고 후퇴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곤난만 보고 미래에 대한 승리를 보지 못한다면 비관할 수 있으며 투쟁에서 물러 날 수 있다.

과거나 오늘이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변절자들은 모두다 혁명의 간고성과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락망한 자들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량대 진영 간의 치렬한 투쟁에서 제국주의는 압도 당하고 있으며 날로 쇠퇴 몰락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아직도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도처에서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민족 해방 운동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교살하기 위하여 발광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에 가까와 갈수록 더 횡포해지고 있으며 더욱더 침략과 전쟁 도발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멸망에 직면한 자들의 최후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곤난 앞에 눈이 어두워지고 비굴해진 수정주의자들만이 이러한 발악에 겁을 집어 먹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적에 대한 이러한 비겁성과 공포증을 가장 타기할 일로 간주하며 이러한 립장과는 철두철미 비타협적으로 투쟁한다.

혁명을 하자면 어차피 강대한 적과 맞서야 하는 것이며 간고성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그 앞에서 피해 달아나거나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그를 맞받아 싸워야 하며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곤난을 이겨 내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여 있어야 하며 당면한 난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래일의 행복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대담하게 뚫고 나가는 락천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장 실패가 올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우리는 락관으로써 그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일시적 후퇴 시기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패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들은 승리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락관에 충만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고 혁명적 락관주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패배주의, 비관주의는 혁명에서 아

주 금물이다.》(1961년 4월, 전국 교육 일군 열성자 대회에서의 연설 참조)

난관과 적 앞에 주저하고 동요하며 변절하는 비겁성, 비관주의는 공산주의자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 락관만이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자—이는 혁명적 락관주의자이다.

2

혁명적 락관주의는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발전 법칙을 인식함으로써 혁명 위업의 승리와 그 실현 방도를 확신하며 혁명 력량에 대한 신심과 굳건한 혁명적 투지를 가지게 된다.

공산주의자들 이전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도 혁명 투쟁에서 락천성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락천성은 공산주의자들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것은 그들의 락천성이 확고한 과학적 기초를 가지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투쟁 행정에서 부닥친 난관을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실망과 비관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와는 달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락관주의가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 부동한 것이며 그들의 필수적 기질로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리상은 아름다우며 현실적이다. 이 리상은 인류의 념원과 미래를 표현하고 있으며 사회 발전의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던 시기 우리의 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한 바 있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 땅 우에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종국적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리상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필코 현실화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습니다.》(《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제1권, 17페지 참조)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장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그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며 싸운다.

승리에 대한 깊은 확신과 결합된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기 투쟁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신심을 가지게 하며 그들에게 혁명적 락관주의를 불러 일으킨다. 그들은 어떤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 지어 전도가 아득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비관하지 않고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그를 극복해 나가며, 적들의 교수대 우에 서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도 승리의 앞날을 예감하면서 태연하게 죽음을 맞받아 나가는 것이다.

《공산주의! 이것은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키워 내는 요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웃으면서 죽습니다.》—이것은 불굴의 투사 박 길송 동지가 원쑤들에 의해 희생되는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다.

이것은 참으로 혁명 위업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것을 위해 바친 자기 삶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친 공산주의자들만이 할 수 있는 락천성의 노래이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락관주의는 또한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한, 나아가서 전체 피착취 근로 대중과 인류의 해방을 위한 투쟁 위업의 의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로동 계급과 전체 인류를 착취와 고된 로동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바 이것은 최고의 인도주의이며 따라서 전체 피착취 근로 대중과 진보적 인류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긍지 그리고 이 위업과 결합된 고귀한 혁명적 량심으로 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곤난에 부닥쳐도 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운명을 조국과 인민, 혁명의 위업과 결부시킨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공화국 영웅전》 1권, 46페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적의 화구에 몸을 막아 아군의 진로를 개척한 리 수복 영웅의 이 심장의 웨침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져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조국과 인민, 전체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투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정의의 사업이며 정의는 반드시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정의의 위업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개인의 행복도 자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두려움과 비겁성을 모르며 영웅성과 락관주의를 발휘한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혁명 승리의 필연성, 혁명의 의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혁명 수행의 방도를 아는 데서만 나올 수 있다.

아무리 미래를 확신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로 도달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모른다면 락관주의는 나올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혁명 수행의 방도를 앎으로 하여 더욱더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락관하는 것이다. 과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로 무장된 우리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가장 본질적 차이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현대 사회의 가장 선진적 계급이며 혁명의 기본 동력으로서의 로동 계급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로동 계급을 다만 헐벗고 불쌍한 존재로, 해방되여야 할 존재로만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안》을 실현할 담당자를 찾

지 못하였으며 담당자를 찾지 못한 《안》은 실현 방도와 떨어진 공상의 범위를 벗어 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 대중을 발견하였으며 따라서 로동 계급을 앞장으로 하고 그와 손잡은 농민과 전체 인민 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조직 동원한다면 혁명 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혁명 수행의 진정한 방도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혁명의 방도에 대한 리해와 더불어 인민 대중의 힘을 믿는 것은 락관주의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인민 대중이 궐기하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다 근로자들의 손으로 창조되였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도 로동자, 농민이고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도 로동자, 농민입니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50 페지)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인민 대중의 힘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 투쟁에서 승리를 의심치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곤난에 부닥치더라도 인민 대중의 힘에 의거하면 극복 못 할 것이 없다는 신념으로 충만되여 있으며 따라서 곤난을 두려워함이 없이 락천적으로 투쟁의 길에 나선다. 바로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어려운 투쟁의 고비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그를 끝까지 극복해 나가며 승리를 쟁취하는 힘의 중요한 원천이 있다.

전후 복구 건설의 한 시기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국제적으로는 수정주의가 대두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소동이 더욱 악랄해졌으며 국내에서도 미제와 그 주구들이 끊임없이 《북진》 소동을 일으켰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경제 건설의 성과가 그 효력을 본격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형편이였고 인민들의 생활도 어려운 채 남아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또한 당내에 기여 들었던 반혁명 종파'군들의 책동이 로골화되였다. 사태는 매우 엄중하였으며 복잡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 핵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인민 대중의 힘을 굳건히 믿는 데로부터 추호의 동요도 없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 나갔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은 군중 속으로 들어 가 정세의 심각성을 해설해 주고 대중을 적극 조직 동원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때에 혁명에서의 일대 고조의 시기—천리마 시대를 열어 놓았다.

경험은 대중의 힘에 의거하면 어떠한 곤난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맑스-레닌주의적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증해 주었다. 그리하여 오늘 대중 속에 들어 가서 대중과 더불어 모든 일을 직접 토의하며 곤난을 극복해 가는 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확고한 사업 방법으로 되였다.

우리는 인민 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으로 하여 곤난을 두려워함이 없이 락관적으로 혁명 과업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혁명적 락관주의는 불굴의 의지, 굳건한 결심을 가질 때에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혁명 투쟁의 전망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립장을 꿋꿋이 지켜 나가며 모든 난관을 완강하게 이겨 나가는 굳건한 의지와 결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

락관주의와 강의성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락관주의가 있어야 굳건한 의지가 나올 수 있으며, 또 굳건한 의지에 토대함으로써만 락관주의는 진정으로 발현될 수 있다.

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력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강철의 의지를 가진 투사들로서 특이하다. 그들은 일단 결심한 것에 대해서는 일편단심 변함이 없으며 끝장을 내고야 만다.

우리 인민이 어떻게 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국제 반동의 원흉 미제와 맞서서 싸울 수 있었으며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가혹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미국놈들에게 항복하였다면 우리는 미국놈들의 개 돼지 만도 못한 처지에 빠졌을 것입니다.》(김 일성, 《당 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강한 의지와 굳은 결심은 우리가 곤난을 두려움 없이 싸워 나가는 락관주의의 발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혁명적 락관주의는 일정한 사상-의지적 바탕에 기초해서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공산주의자들에게 저절로 생겨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교양이 요구된다.

3

사람들을 혁명적 락관주의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맑스-레닌주의 교양이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 투쟁에서의 라침판입니다. 그것은 사회 발전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모든 사물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지침으로 되는 것입니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434 페지)

우리가 맑스-레닌주의를 잘 모르면 과학적 세계관을 가질 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질 수 없으며 장래를 예견할 수 없다. 또한 맑스-레닌주의를 모르면 자기 혁명 위업의 정당성도 알 수 없고 인민 대중의 힘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를 철저히 안식할 때에만 혁명적 락관주의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의 현실에 구현된 맑스-레닌주의인 당 정책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당의 정책에는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필수적 요구가 반영되여 있으며, 우리의 과거가 총화되여 있고 현재와 장래의 우리 혁명 발전의 전망이 과학적으로 천명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정책으로 무장함으로써만 곤난에 굴복함이 없이 락관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혁명적 락관주의를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온갖 간난신고 속에서도 굴함 없이 혁명적 지조를 지키고 혁명 위업을 수행한 항일 빨찌산

혁명 선렬들의 모범에서 배우는 것이다.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한 항일 빨찌산 투쟁에서 실로 세계 력사상 그 류례를 찾기 어려운 간고한 시련을 겪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서도 당황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그를 뚫고 나아갔으며 투쟁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과 혁명적 락천성의 소유자들이였기 때문에 1~2년도 아니고 15여 성상의 긴 세월을 간악한 일제와 싸워 나갈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모범에서 배움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시련기가 닥쳐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싸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락관주의의 배양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적으로 혁명 투쟁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다.

자신을 혁명 투쟁의 도가니 속에 투신하지 않고 관망적으로만 락관주의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산 품성으로 될 수 없다.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속에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난관과의 적극적인 투쟁 속에서 락관주의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과학된 락관주의는 우리의 피와 살로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심장 속에 맥박치는 품성으로 될 수 있다.

❀ ❀

혁명적 락관주의는 혁명 수행에서 승리를 보장하며 적을 타승하는 위대한 힘으로 된다.

혁명적 락관주의가 없이는 어려운 시련을 이겨 낼 수 없으며, 대중을 혁명 승리에로 힘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없으며, 생활을 락천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혁명 과업들이 남아 있는 만큼 우리는 계속 곤난과의 투쟁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들을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조국의 통일과 전국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의 날까지, 온 세상에 공산주의 붉은기가 자유로이 휘날릴 때까지 굴함 없이 용감하게 싸워 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앞장에 서는 것은 청년들의 영예로운 임무

홍 순 권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대회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 나아가서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는 제 1 차 5 개년 계획의 력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초기에 소집되였다.

이때는 바로 우리 나라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으며 인민 경제의 복구 시기로부터 기술적 개건기에 들어 선 때였다.

이 시기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긴절한 과업은 우리 인민 경제에서 세기적인 기술적 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확고히 축성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를 성과 있게 해결함으로써만 우리는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며 나아가서는 조국 통일을 위한 혁명적 민주 기지를 일층 강화할 수 있었다.

이 방대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내외 원쑤들의 온갖 비방과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갖은 곤난을 이겨 내며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하였다.

특히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고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및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도처에서 기술 혁신을 일으킴으로써만, 온갖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지지하는 심각한 사상 투쟁을 통하여서만 이 웅대한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었다.

이 력사적인 시기에 당은 바로 청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으며 난관을 개척하는 영예로운 투쟁에로 그들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였다. 우리 청년들은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항상 용감하게 투쟁하는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 력량으로서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혁명적 열정이 높다.

김 일성 동지는 1933년 3월 왕청현 공청 확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청년들은 귀중한 보배들이다. 그들은 태산도 허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키우고 단합시켜 위대한 사회 변혁의 거대한 혁명적 력량으로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청년 사업이다…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특히 기술 혁신과 문화 혁명 수행에서 그들의 전봉적 역할을 높임으로써만 우리는 5 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할 수 있

었다.

이리하여 력사적인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는 소집되였으며,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혁명 발전 도상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긴요한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청년들이 놀아야 할 결정적인 역할과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명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 연설에서 모든 청년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기술 문화 혁명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 손으로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혁명 정신을 소유할 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과거 항일 무장 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우리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항상 난관을 돌파하는 결사전에서 청년들이 앞장 서게 함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보장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 기풍의 빛나는 구현이다.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혁신과 생산적 앙양을 위한 건설장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 없이 발휘하였다.

지난 5 년간 20 여만의 우리 청년 남녀들이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곳, 광산, 탄광, 발전소 건설과 철도 부설, 도시 건설, 수산업 그리고 농촌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 개조 등 어렵고 힘들고 긴요한 모든 부문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웠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제 1 차 5 개년 계획 실행 도상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되였던 보수주의, 기술 신비주의를 극복하고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의 청년 기술자들과 로력 혁신자들 그리고 수 많은 로동 청년들은 낡은 기준량과 공칭 능력을 대담하게 깨뜨리고 도처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황해 제철소 60 여 명의 청년 기술 집단이 창안한 해탄로의 제탄기 도입을 비롯하여 지난 1 년간 공업 부문에서만 해도 5만 여 건의 창의 고안이 청년들 속에서 제기된 사실은 이것을 실증하여 준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의식으로 교양하는 사상 개조와 문화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결속되여 혁명 과업 실행에로 적극 동원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청년들 속에서는 수 많은 로력 영웅들과 인간 개조의 명수들이 자라났으며 난관과의 투쟁에서 단련된 우수한 청년들에 의하여 우리 당 대렬은 부단히 보충되였다.

생활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청년들의 힘을 믿고 그들을 부단히 교양하며 그들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사업하여 나간다면 그 어떠한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 교시는 오늘 조성된 정세와 우리 앞에 제기된 무거운 혁명 임무에 비추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5 년 간 우리 청년들은 많은 일들을 하여 놓았지만 그들이 오늘 할 일은 더욱 많아졌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 개년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혁명의 모든 진지를 튼튼히 꾸림으로써 사회주의 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하며 이리하여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이 모든 투쟁은 계속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계속 관철시켜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설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인 기술 혁신과 문화 혁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7 개년 계획의 력사적 과업은 우리 앞에 전면적인 기술 혁신과 문화 혁명을 더욱 폭 넓게 그리고 더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늘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그의 화학화를 실현하며 수산업 및 기본 건설을 계속 추진시키는 사업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기본 문제는 기술 문제의 해결이다.

전면적인 기술 혁신, 이는 낡은 것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 투쟁을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선다는 것은 우선 기술 혁신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청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처지로 볼 때 그들은 보수주의를 극복하는 투쟁에 있어서나 새 기술을 습득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백만에 달하는 전체 청년들이 모두가 다 선진 기술을 배우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한다면 이것은 큰 힘으로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더욱 성과 있게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 경제는 더욱 급속히 발전될 수 있게 될 것》(김 일성 선집, 제 5 권, 432 페지)이다.

그러므로 오늘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며 자기 사업에 정통함으로써 기술 혁신의 영웅이 되라는 당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로 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근로자들의 의식을 개조하고 문화 혁명을 추진시키는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의식 개조와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온갖 낡은 의식과 생활 관습을 뿌리 뽑고 문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우리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전진 운동을 방해하는 낡은 사상 의식과 생활 인습을 청산함이 없이는 기술 혁신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없다.

근로자들의 의식 개조와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은 우리 청년들의 노력에 크게 달려 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벌써 어제'날의 청년이 아니다. 그들은 해방 후 당에 의하여 사회주의 사상과 선진 과학 지식으로 교양 육성된 청년들이며 낡은 사상 의식과 생활 관습에 대하여 타협할 줄 모르며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살며 투쟁하는 사회주의 건설자들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의식 개조와 문화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일 때야만 일체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집단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도덕 기풍을 성과 있게 확립할 수 있으며, 선진 과학 지식과 일반 지식을 적극 보급하여 근로자들의 문화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며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천리마 작업반은 우리 사상 사업의 거점으로 되여 있으며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이다.

전국을 휩싸고 있는 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는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모든 천리마 작업반들에서 당의 방침에 근거하여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을 발전시키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면서 대중 교양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모든 청년들이 사람의 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에 한결 같이 동원된다면 우리는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자본주의 낡은 사상 의식과 관습을 극복하고 대중을 사회주의 의식으로 무장시켜 기술 혁신과 문화 혁명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 교시는 우리 청년들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켜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실현할 때까지 잠시도 투쟁을 멈출 수 없다.

그러므로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야 마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 내여 생산을 더욱 앙양시켜 당의 혁명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할 수 있다.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는 진지한 태도로 우리 나라의 자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옳게 리용하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기계와 설비를 자체로 만들어 내며, 합리적인 생산 방법을 강구하는 등 혁신 운동에 우리 청년들이 적극 참가한다면 이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예비가 솟아 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혁명 정신을 소

유함으로써 내외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견결히 수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주의 및 자본주의 온갖 낡은 사상과 부패 타락한 생활 관습의 침습을 방지하고 당적 원칙을 고수하며 고상한 혁명가적 기풍을 확립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일 투사들의 혁명 정신을 본받기 위한 혁명 전통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다.

풀과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데서나 불사조마냥 끝까지 살아서 원쑤와 싸워 이긴 항일 투사들의 백절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철저히 파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교양 사업을 실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청년들을 이러한 혁명 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거세찬 로력 투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의 땀으로 이룩한 전취물로 하여 우리의 제도를 더욱 사랑할 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신심과 높은 자각, 그리고 혁명 앞에서 그들의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동 강령이다.

이 강령적 지침을 옳게 관철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각급 민청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크게 달려 있다.

오늘 민청 단체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청년들을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청년들이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 정책을 꾸준히 학습하여 그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고 실천에 옮길 줄 알며, 선진 과학 기술을 부단히 습득하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며, 고상한 공산주의 사상 의식과 도덕 기풍을 소유하며, 건전한 체력을 소유한 즉 지, 덕, 체를 겸비한 새 형의 인간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꾸준히 준비함으로써만 원만히 실현될 수 있다.

각급 민청 단체들은 민청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청년들을 당의 전투적 후비대로 육성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과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상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조건 하에서 그들을 확고한 계급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리하여 청년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그들을 우리 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적극적 투사로 당의 붉은 전사로 준비시킬 것이다.

조선 로동당 제 2 차 대회의 력사적 의의

김 창 규

우리 당 제 2 차 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15 년이 경과하였다.

제 2 차 당 대회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강화 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회의 력사적 의의는 우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조선 인민을 미제의 분렬 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한결 같이 조직 동원한 데 있다.

대회가 소집될 당시 국내의 정세는 민주와 반동 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미제의 군사 기지 확장과 전쟁 준비 책동이 로골화된 것으로써 특징 지어졌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실행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우리 조국 남반부를 영원한 식민지로, 새로운 전쟁 도발의 전초선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괴뢰 정부를 날조하기에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었다.

조선 인민 앞에는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을 폭로 분쇄하고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의 위기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며 나라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실현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었다.

제 2 차 당 대회는 우리 조국에 조성된 긴박한 정치 정세와 혁명 발전의 로정을 과학적으로 예견하면서 미제의 분렬 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을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였다.

대회가 제시한 평화적 조국 통일 방침은 외세 의존을 반대하고 철저한 자주성 원칙에 립각한 것이였으며 인민 대중의 절실한 념원과 리익을 반영한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였다.

조국 통일에 대한 이 방침은 전 당을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무장시키며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전체 조선 인민을 조국 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우리 당은 남북 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단합시켜 미제의 침략 책동을 파탄시키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촉진시키는 거족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제 2 차 당 대회가 제시한 조국 통일 방침을 실현하는 행정이였으며 이 방침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거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당은 조국 통일 방침을 실현함에 있어서 항상 적을 철저히 폭로하고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사업과 대중을 전취하고 그들을 혁명 투쟁에 궐기시키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켰으며 새로운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새 국면을 개척하면서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였다.

제 2 차 당 대회 직후에 우리 당의 발기에 의하여 소집되였던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련석 회의, 남조선에서의 망국적인 단독 선거의 완전한 파탄,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의 총의에 의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수립, 이 모든 것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 대한 전체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보여 주었으며 그 때마다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은 더욱 성과 있게 추진되였다. 특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수립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조선 혁명의 완전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으며 공화국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의 새로운 기치로 되였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로선은 전후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새로운 방안들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되였으며 그 위력을 더욱더 빛내였다.

전후 우리 당이 제시한 현실적인 정당한 통일 방안들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은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 각성시키고 그들에게 광명한 앞길을 열어 주었으며 4월 인민 봉기를 일으키는 커다란 힘으로 되였다.

4월 인민 봉기는 리 승만 《정권》을 타도하고 미제 식민지 통치 지반을 근저로부터 뒤흔들어 놓았으며 남조선에서의 미제 식민지 통치의 전면적 위기를 조성시켰다.

우리 당이 제시한 남북 조선의 련방제 실시와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보다 적극적인 새로운 국면을 열어 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남북 협상의 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제는 총 파산에 직면한 자기들의 통치를 수습해 보려고 군사 파쑈 독재를 수립하고 남조선을 류혈적 테로와 학살의 도가니로 전변시켰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그 어떠한 파쑈적 테로 통치에도 굴함이 없이 항거하여 나섰으며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이 달성한 이 거대한 승리는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비록 간고하며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으나 대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선 인민이 조국 통일의 위대한 사변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될 날은 더욱더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제 2 차 당 대회의 력사적 의의는 또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 첫 시기의 당의 경제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 당으로 하여금 건설자의 당으로 되게 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통일의 강력한 성새인 민주 기지를 확고히 축성할 수 있게 한 데 있다.

정권을 쟁취한 이후 시기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당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특히 과도기 첫 시기에 들어 선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부흥 발전시키는 문제는 극히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력사적 특수성과도 관련되여 있었다.

조국이 남북으로 분렬되여 있고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가 심히 파괴되고 혹심한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을 띤 조건에서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고 민주 기지를 튼튼히 꾸리지 않고서는 미제의 침략적 책동을 파탄시키고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할 수 없었으며 혁명의 전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다.

조성된 정세는 당 및 국가의 모든 력량을 인민 경제 부흥 발전을 위한 투쟁에로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 2 차 당 대회가 규정한 과도기 첫 시기의 당의 경제 정책, 《경제의 국가적 부문과 조합적 부문과 개인적 부문의 발전을 국가적 부문의 우세와 지배적 역할을 가진 조건 하에서 결합시키는 원칙이며 생산과 무역 및 금융에 대한 계획적 원칙과 국가적 관리에 대한 원칙》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를 급속히 부흥 발전시키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구축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대회가 규정한 당의 경제 정책은 당시 나라의 사회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차 도시와 농촌에서 전면적 사회주의 개조를 위한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방침이였다.

제2차 당 대회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성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장성하였으며 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 확장되고 공화국 북반부는 식량이 부족하던 지대로부터 여유 있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이리하여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벌써 당의 령도 하에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힘으로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는 고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자기 로동의 결실을 마음 대로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락원에서 살게 되였다.

제 2 차 당 대회에서 제기한 당의 경제 건설 로선은 전후 제 6 차 전원 회의와 제 3 차, 제 4 차 당 대회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였으며 실천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였다.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그의 현명한 령도, 로동 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전후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확고히 구축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생활에서는 세기적인 진보와 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대 미문의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에 오늘은 모두가 서로 돕고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 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자립적 민족 경제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가진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이와 같이 하여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의 장성과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축성을 예견하였던 제 2 차 당 대회의 결정은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는 조선 혁명의 반석 같은 기지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하는 결정적 력량으로 전변되였다.

제 2 차 당 대회가 제시한 경제 사업에서 당적 령도를 강화하고 관리 운영 수준을 제고할 데 대한 사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민주 기지를 축성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 일성 동지는 제 2 차 당 대회 보고에서 《…우리 당으로 하여금 군중을 조직하며 군중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줄 아는 정당으로만 되게 할 것이 아니라 건설할 줄 알며 경리를 운영할 줄 알며 경제 건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건설자의 당으로 되게 할 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경제를 건설할 줄 아는 당으로 되게 할 데 대한 제 2 차 당 대회의 사상은 우리 혁명 발전의 전 행정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화되였다.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나 전후 복구 건설의 시기를 통하여 당 조직들은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를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경제 기관들의 사무실적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퇴치하고 실질적이며 분석적인 산 지도 방법을 수립하게 되였으며 경제 건설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 계속 혁신을 이룩하게 되였다.

특히 1960년 2월 김 일성 동지에 의한 청산리 지도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일적 지배가 확립된 새 환경과 새 조건에 알맞게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는 새로운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확립하였으며 경제 사업에 대한 당 위원회들의 키잡이 역할을 제고하는 결정적 계기로 되였다. 또한 경제 건설에서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며,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사회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할 데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 경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제 4 차 당 대회 후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더욱 깊이 침투되는 행정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 및 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대중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무한히 발동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공업 관리 체계와 농촌 경리 지도 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건설자의 당으로 되게 하라고 한 우리 당 제 2 차 대회의 호소는 오늘 우리 당으로 하여금 복잡하고 방대한 현대적인 사회주의 경리를 능숙하게 관리 운영하는 당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당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전면적 기술 개건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며 혁명적 민주 기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

우리 당 제 2 차 대회는 당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당 대렬을 질적으로 꾸리는 데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대회는 당이 급속히 대중적 당으로 장성하면서 당 내에 아직 공산주의적 핵심이 많지 못한 데다 많은 당원들을 당 대렬에 망라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과도기 혁명 과업의 요구에 맞게 당을 질적으로 꾸릴 데 대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면서 특히 세포를 강화하고 핵심 당원들의 역할을 제고하며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할 것을 전 당에 호소하였다.

대회가 제시한 이 방침은 당 대렬이 급속히 확대되는 조건 하에서도 당의 조직 사상적 순결성을 보장하게 하며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결정적 대책으로 되였다.

제 2 차 당 대회 이후 당은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제고하며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당은 이미 평화적 건설 시기에 제 2 차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튼튼히 하면서 그 전투력을 강화하였으며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였다. 이것은 미제 무력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있게 한 기본 담보로 되였다.

우리 당은 정세가 어려울수록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견결히 고수하여 나섰으며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당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다.

당의 공고화를 위한 계통적인 투쟁은 제 1 차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 고질로 되였던 종파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케 하였다.

대표자회 후 종파주의 잔재와 불건전한 사상 요소들을 청산하기 위한 전 당적인 투쟁이 전개되였으며 이 행정에서 전 당에 당적 사상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당의 질적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당 생활 강화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 생활이 강화됨으로써 당원들은 당성을 더욱 단련하고 정치 의식 수준과 실무 수준을 높이였으며 대중 속에서 신망을 획득하고 혁명 과업 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충분히 놀 수 있게 되였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3 차 전원 회의 이후 당 생활 체계와 당 생활 지도 체계가 전 당에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으며 모든 당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부단히 사고하고 움직이고 있다.

또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 사업에서 낡은 틀이 청산되고 혁명적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이 전 당을 지배하게 되였으며 당 사업이 완전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이것은 당의 전투적 기능을 가일층 제고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굳게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전체 당 조직들과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결속되였으며 어떠한 풍파와 난관 속에서도 조선 인민을 확고하게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는 강유력한 불패의 당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력사에서 오늘과 같이 우리 당이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된 때는 없었으며 오늘과 같이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통일 단결된 때는 없었습니다.》 (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

오늘 우리 앞에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켜 혁명적 민주 기지를 철벽으로 다지며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여야 할 어렵고도 복잡한 혁명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제 2 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조국 통일의 기본 원칙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만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과 있게 달성할 수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 한편 남조선에서 군사 파쑈 독재를 쓸어 버리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가 참가하는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며 전 인민이 단결하여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 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된다.

우리 당을 경제 건설의 당으로 되게 할 데 대한 제 2 차 당 대회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일층 높이며 청산리 정신,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우리 혁명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오직 당 조직들의 키잡이의 역할을 가일층 제고함으로써만 부과된 혁명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성과 있게 점령할 수 있다.

동시에 당을 질적으로 꾸릴 데 대한 제 2 차 당 대회 정신에 기초하여 당의 기층 조직을 더욱 강화하며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로 하여금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수정주의를 비롯한 일체 부르죠아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어떠한 환경 조건 하에서도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당적 립장을 고수할 줄 아는 불굴의 투사로 육성할 수 있다.

하나의 의지로 굳게 통일 단결된 강철의 당, 당과 인민과의 불패의 통일,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진 강력한 혁명의 기지, 북반부의 사회주의 혁명 력량과 남반부의 광범한 혁명 력량의 결합,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쟁취케 하고야 말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

조 재 선

도시와 농촌의 호상 관계를 옳게 조절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로농 동맹, 인민 경제의 계획적 발전,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 등 일련의 근본적 문제들이 도시와 농촌의 련계가 정확히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부터 도시와 농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거대한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으며 사회주의 하에서의 도시 및 농촌의 호상 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정확히 구체화하고 풍부화시켰다.

* *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도, 나아가서는 도시 및 농촌의 본질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소멸하는 구체적 로정에 대한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결하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 및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은 도시와 농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총적 기초로 된다. 이 기본 로선은 공업의 주도적 역할 밑에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부단한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생산력 발전 수준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 및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 소멸 과정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도시 주민들과 농촌 주민들 간의 수준상 차이를 적게 하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도시가 너무 번화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반면에 농촌은 더욱더 령락하며 또한 생활 수준도 도시에 비하여 훨씬 낮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러한 차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만큼 도시 및 농촌 건설에서나 로동자와 농민들의 생활 수준에서 차이를

많이 두게 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선집 제 5 권, 367 페지)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또한 생산력의 지역 간 배치에서나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 간의 련계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점차적으로 접근시키는 일련의 대책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1) 공업과 농업의 동시적인 급속한 발전, 2)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의 균형적 향상, 3) 도시와 농촌 지역의 유기적 결합과 부단한 접근이라는 기본 내용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중첩된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여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제 정책은 전후 복구기나 사회주의 기초 건설 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 시기, 전 과정을 일관하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중요한 일환이다.

더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시키며 장차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이라는 전망적 과업의 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 *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은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공업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농촌 경리가 공업 발전을 따라 가지 못한다면 공업도 한 자리에서 답보하게 될 것이며 자기의 지도적 역할도 옳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공업 발전에 적응하게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며 공업과 농업을 유기적으로 옳게 련결시켜야만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선집 제 5 권, 1 페지)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농업이 공업에 비하여 한 력사적 단계를 뒤떨어진 물질적 생산 부문이라는 데 있으며, 농업의 이와 같은 락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물질적 수단들은 농업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현대적 대기계제 공업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농촌 경리를 강력히 지원하며 농업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선행되지 않는 한 농업의 세기적 락후성을 청산할 수 없으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과거 공업 발전이 미약하였던 나라들에서는 자립적 공업 토대를 축성하고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현하는 것

이 농업까지도 현대적 대기계제 생산의 토대 우에 올려 세움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일정한 기간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 수단과 로동력을 공업에 집중시켜야 할 필요성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조건은 공업화를 빨리 하기 위하여 중공업을 강행적으로 발전시키거나 또는 공업에만 치중하고 농업 생산에는 관심을 덜 돌리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게 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나라는 공업이 락후할 뿐더러 농업도 심히 피폐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식량조차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형편에 있였다는 데 있다. 이것은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업 자체의 건설도 불가능하게 하였다.

둘째로, 원래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에 의거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동시에 급속히 발전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공업화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치더라도 계속 높은 속도로 부단한 확대 재생산을 보장할 수 없으며 결국은 공업화의 속도 자체도 더디게 하는 데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공업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면서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다 같이 빨리 발전시키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을 제시하였고 견결히 관철시켰다.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에 대한 기본 로선을 확고히 관철시키면서 농촌 경리의 기술적 수요와 밀접히 련결된 자립적 중공업 기지를 단시일 내에 구축하였으며 이것으로써 공업화의 높은 속도와 농업의 동시적인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자립적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여 공업 상품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자극하였다.

1954~1960년 간에 우리 나라의 공업 총 생산액은 9.9 배로, 그 중 생산 수단 생산은 15 배, 소비재 생산은 약 7 배로 장성하였는데 농업용 기계 및 농기구류는 120 배, 전동기와 변압기는 각각 46 배와 61 배, 화학 비료의 생산은 25 배 이상(1954 년도 초 기준), 세멘트는 84.3 배로 장성하였으며 농업 생산과 밀접히 관련된 전력, 강재, 원목 등의 생산도 매우 빠르게 장성하였다. 같은 기간에 방직 공업은 7 배,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은 8.4 배, 문방구 및 잡화 공업은 27 배로 장성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이 창설하고 발전시킨 공업 부문들은 그 어느 것이나 농업 발전과 인민 생활의 요구에 밀접히 결부되여 있으며 공업과 농업의 동시적인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가장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직 이와 같은 자립적 공업 토대에 의거함으로써만 도시와 농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

공업 건설에서 농업의 요구를 정확히 타산함과 함께 농촌 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계통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결정적 담보의 하나로 된다.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는 반드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강력한 물질적 지원에 의거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왜냐 하면 협동 농장들의 제한된 재정적 기술적 력량만으로써는 공업에 비한 농업 생산력의 락후성을 제거하기 위한 농촌 기술 혁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더구나 모든 지대, 모든 지역에서 이 과업을 동시에 전반적으로 수행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협동 농장을 책임지고 농촌 기술 혁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뿐만 아니라 공업의 강력한 기술적 토대에 의거하여 부단히 농촌을 지원하는 것이다.

레닌은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거부하는 자는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사회주의의 지지자로도 될 수 없다고 가르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시기에 걸쳐서 농촌 경리의 발전에 전 당적, 전 국가적 주의를 돌려 왔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하여 농촌을 지원하였다.

우리 당은 전후 복구 시기의 어려운 때로부터 시작하여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 투자를 년년 증대시켜 왔다.

례컨대 1954~1956 년간의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 투자를 년 평균 100으로 할 때 1957~1960 년간에 그것은 158로 증대되였다. 그리하여 생산적 건설에 대한 국가 투자 중 농업에 대한 국가 투자는 어느 때나 중공업 다음에 가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건설 정책에서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된다. 특히 복구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공업 건설에 결정적으로 투자를 집중시켜야 하였던 공업화의 기초 건설 시기에도 계속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 투자를 증대시켰다는 사실은 우리 당이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단적인 실증으로 된다.

이와 같이 방대한 국가적 지원을 줌으로써만 우리 당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 등 기술적 개조를 강력히 촉진시킬 수 있었으며 농촌 기술 혁명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할 수 있었다.

농촌 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로력 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촌 인구의 감소에 의한 도시 인구의 장성은 공업화 과정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비상히 높은 속도는 도시 및 농촌 인구의 구성에서 도시 인구의 비중을 급속히 증대시켰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 경제 발전의 과정들은 결코 맹목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는 될 수 없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옳바른 경제 정책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으며 그의 결과도 반드시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시에 농촌 로력이 감소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서 청장년 로력의 비중이 줄었다. 농촌 기술 혁명의 방대한 과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한 조건에서 급속히 집약화되고 다각화된 농업은 그에 대비하여 동일한 규모에서는 아닐지라도 농촌 로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당은 농촌 로력을 무제한하게 도시에 이동시키는 것을 엄격히 경계하

였다. 당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 인민적인 기술 혁신 운동을 조직함으로써 로동력 수요의 긴장성을 풀며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고 정무원, 제대 군인, 기술자, 청년들을 계통적으로 농촌에 파견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농촌에 대한 도시 주민들의 로력적 지원을 조직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로력 배치의 균형성을 정확히 보장하였다.

우리 당은 농촌 로력 정책을 다만 긴장된 로력 수요의 해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농촌의 핵심 진지를 강화하며 농촌의 문화 수준을 제고시키는 사업과 밀접히 련결시켜 왔다.

1957~1960년 간에만 하여도 우리 당은 실 공수로 년 평균 752만 3,000 명에 달하는 도시 주민들의 농촌 로력 동원을 조직하였으며 1961~1962년에는 년 평균 1,860만 5,000 명의 농촌 로력 지원을 보장하였다. 1954~1960년 간에 농업 부문 기술자, 전문가 수는 약 7 배로 장성하였으며 1961년 11월 5일 현재 우리 나라 농업 부문 기술자, 전문가 수는 1만 9,410 명에 달하였다. 농촌 로력을 고착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시책들이 관철됨으로써 전후 시기 급속한 도시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수는 그리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다.

례컨대 1953~1960년 간에 공업과 농업의 비중이 42:58로부터 71:29로 변화된 반면에 공업 로력과 농업 로력의 대비는 6:94로부터 23:77로 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농촌 로력의 감소를 적극 방지함으로써 공업화 과정에 생겨 날 수 있는 농촌 로력의 긴장성을 완화시키며 공업 및 농업 생산의 동시적인 장성을 보장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급속히 장성시키는 경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비상히 높은 속도로 진행되는 공업화 과정에서도 공업과 농업 간의 정확한 균형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기에 있어서와 5 개년 계획 수행의 4 년 간에 우리 나라의 농업 총 생산액은 각각 1.4 배로 장성하였으며 사회주의 기초 건설이 완성됨과 함께 식량에 대한 수요와 경공업 원료로서의 농산물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공업과 농업의 더욱 급속한 동시적 발전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 주는 전제로도 된다.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서 공업 생산의 장성이 3.2 배라는 매우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는 조건 하에서도 농업 총 생산액을 2.4 배로 장성시킬 데 대한 당의 획기적 조치는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또 하나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공농 균형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도시 및 농촌 주민의 물질 문화 수준을 균형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이다.

사회 성원들의 빈부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유족하게 살도록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원칙에서와 도시와 농촌의 본질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앨 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요구에서 출발할 때 인민 생활 향상에서의 리상적인 균형이란 모든 지역, 모든 부문의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수준을 접근시키고 고르롭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착취 없는 사회주의 하에서도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우선 사회주의 사회에도 당분간은 남아 있게 되는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기능 로동과 무기능 로동 간의 차이를 타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로동에 의한 분배가 개인 소득 조성의 기본 원천으로 되는 조건 하에서 각이한 생산 부문과 로동의 숙련 정도에서의 차이는 곧 로동 생산 능률에 반영되며 이는 매개 부문, 매개 로력자들의 개인 소득에서의 차이를 조건 지어 준다. 또한 로동에 의한 분배가 불가피한 한 로력 지불의 형태만으로써는 매개 근로자 세대 성원들의 실질 생활 수준상의 차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의 균형, 특수적으로는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의 균형에 대한 문제가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분배 정책에 대한 요구를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봉건 통치와 제국주의 식민지 착취로 말미암아 인민 생활이 극도로 빈궁화되였으나 반면에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았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도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인민 생활에서 도시 및 농촌 간의 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돌려 왔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기초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수입을 급속히 장성시키면서 동시에 도시에 비한 농촌의 차이가 심화되지 않도록 국민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농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공업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예견성 있게 방지하였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논 것은 농업 현물세, 관개 사용료, 농기계 작업료 등 국가 납부의 계통적인 축소, 농산물 수매 가격의 인상과 소매 상품 가격의 계통적인 인하를 통하여 농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시책들이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전후 시기에도 농촌 주민의 40%에 달하던 빈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강력한 물질적 및 재정적 지원을 주었다.

우리 당은 협동 농장들의 사회주의적 질서와 제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력과 자연 부원을 남김 없이 리용하며 농업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도록 조직하였다.

이 모든 시책들이 정확히 관철됨으로

써 우리 나라 농민들의 소득은 년년이 장성하였다. 1957~1961년 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소득은 2 배 이상으로 장성되였으며 농민들의 현물 및 화폐 수입은 1.6 배로 장성하였다.

또한 당은 농촌 상업망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두메 산'골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유일한 국정 가격에 의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소득 실현과 농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주택 건설에서나 국가 사회 문화 시책들에서 도시와 농촌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는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켰고 또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벌방 지대와 산간 지대 농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상 차이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관철시킴으로써 공업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의 심화를 미연에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에서의 균형성을 보장하였고 인민 생활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하였다.

도시 및 농촌에서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면서 빈농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모든 농민들의 생활을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수준에 끌어 올린 것은 이 분야에서 달성된 가장 중요한 성과들이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도시 주민들과 농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가일층 균형적으로 장성될 것이다. 1961~1967 년간에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실질 소득은 다 같이 2 배 이상으로 장성될 것이다.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생산력 배치에서와 사회주의적 소유의 형태들에 있어서까지도 도시와 농촌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점차 종합적인 지방 경제의 발전과 유일한 전 인민적 소유에로 전화시킬 것을 목적하고 있다.

우리 당은 중앙 공업의 지리적 배치와 농촌 중심지들에서의 지방 공업의 대대적인 발전에 의하여 공업 지대와 농업 지대를 현저히 접근시켰다. 또한 우리 당은 강력한 국가적 소유의 지원 밑에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 간의 차이를 점차 제거하고 농촌 기술 및 문화 혁명의 전진에 따라 유일한 전 인민적 소유에로 이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

우리 당이 확립한 지방 공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도시와 농촌의 접근 및 결합이라는 맑스-레닌주의의 공산주의적 강령을 점차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하고 부단히 공산주의에로 접근하는 명확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 *

도시와 농촌의 본질적 차이의 소멸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필수적 전제 조건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과업을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하는가 하는 것은 나라마다 동일하지는 않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첫 시기부터 도시와 농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도시 및 농촌 간의 본질적 차이 소멸에로 부단히 접근하는 방향과 방도를 찾아 내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도시 및 농촌의 균형적 발전이 도시와 농촌의 본질적 차이 소멸을 위한 원대한 전망으로 보아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당면한 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실증하였다. 여기에 바로 도시와 농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과 그 력사적 경험이 가지는 원칙적 의의가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발전에 대한 또 하나의 공헌이 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로농 동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군중 로선과 밀접히 결합시킨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동맹군으로서의 농민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혁명적인 로동 계급의 립장과 관점을 반영한다. 김 일성 동지가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 당은 로동 계급에 대해서 그러한 바와 마찬가지로 협동 농민들의 일체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오직 이와 같이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립장에서 출발하는 때에라야만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과 같은 원칙적이고 창조적인 경제 정책을 실시할 수 있고 또 그의 철저한 관철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기초 건설의 력사적 경험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남김없이 실증하였다. 전후 페허 우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6~7 년이란 단시일에 완수할 수 있은 기적이라든지, 과거 락후하였던 식민지 농업 국가에서 가장 어렵던 농민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쌍두 천리마의 우렁찬 대약진을 일으킬 수 있게 한 것 등은 모두가 도시와 농촌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생활력과 뗄 수 없이 련관되여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붉은 일색으로 강화하고 남조선 인구의 대다수인 농민들에 대한 우리 당과 북반부 민주 기지의 영향력을 부단히 증대시키는 담보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생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 없이 검증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관철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시키며 부단히 공산주의에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력사적 인물의 형상 문제

강 능 수

최근 년간 우리 작가들은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력사적 인물을 형상한 성과작들을 적지 않게 세상에 내놓았다.

이 작품들은 그것이 다만 우리 문학의 당성, 전투성을 높이며 근로자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였다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력사적 인물의 형상 창조에서 걸리고 있는 미학 리론적인 문제들을 옳게 해명해 주고 있다는 데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력사적 인물의 형상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력사적 진실과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 미학적 요구를 결합시키는 문제이다.

이것은 작가들이 력사 발전에서의 인민 대중의 적극적 역할, 새것과 낡은 것의 치렬한 투쟁, 새것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 등 맑스-레닌주의 관점에서 력사적 진실을 훌륭하게 천명하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는 1930 년대의 력사적 인물을 형상화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력사적 주제의 작품과는 달리 일련의 미학상 특성들이 제기된다.

그것은 항일 투사들 자체가 력사적 인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하고 있는 공산주의 리상을 체현하고 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 백절 불굴의 투쟁 정신, 동지들과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배워 주는 우리 생활의 산 교과서로 되기 때문이다.

이 특성은 우리 작가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높이에 이를 수 있는 부단한 자체 수양과 진지한 창작적 련마를 요구한다.

창작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항일 투사들의 고상한 정신 세계의 묘사는 그 어떤 사료들의 수집과 라렬, 대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1930 년대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사들인 박 달, 리 제순, 마 동희 동지들의 빛나는 생애를 취급한 희곡 《청년 시절》, 《공산주의자》, 《조국의 아들》 등은 좋은 시사를 주고 있다.

이 희곡들은 모두 항일의 영웅들에 대한 전기적(傳記的)인 작품이다.

다른 주제의 창작에서와는 달리 자서전적인 작품의 창작은 예술적 전형화에서 필수적 수단인 허구의 발현에 제약성을 받는다. 따라서 작가는 소여의 주인공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과 일화들, 그리고 사료들을 통하여 파악된 주인공의 성격적 면모, 주인공과 관계하였던 이러저러한 사람들, 즉 주인공의 성격 형성을 위하여 일정하게 한계 지어진 그 특성에 기초하여 전형화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만일 작가가 주어진 사료들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한다면 예술적 일반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감동적 힘을 잃은 단순한 《이야기》로 되게 할 뿐이다.

성공한 작품들의 경험은 력사적 인물의 성격을 부각함에 이 사료들을 소재로써 리용하면서 거기에 작가의 미학적 리상을 옳게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력사적 인물의 사료와 작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희곡 《조국의 아들》, 《청년 시절》은 긍정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

이 작품들은 주인공들의 성격을 전형화함에 있어서 전기적인 작품이 아닌 다른 모든 주제의 창작에서 발현되는 것과 같은 작가와 주인공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 즉 이 작품들에서 력사적 인물은 《나의 주인공》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주인공의 성격 가운데는 력사적 사료에서 볼 수 있는 력사적 인물의 성격적 특성과 함께 작가의 미학적 리상이 결합되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희곡 《청년 시절》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훈적인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우리가 벌써 잘 알고 있는 박 달 동지이다.

박 달 동지의 생애를 회고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그가 집필한 자서전적인 작품 《서광》을 생각하게 되며 거기에서 이야기된 가지가지의 사건들과 고난에 찬 투쟁,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백절 불굴의 투지와 넘치는 정력, 예지, 대담성 등 그의 성격적 특성을 감득한다.

그러나 《청년 시절》에는 우리가 회상기와 《서광》을 통하여 친숙한 수다한 사건들을 모두 작품 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 몇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주인공의 정신적 높이와 내면 세계의 풍부성을 천명하고 있다. 즉 작가는 희샤즈거우 밀영에서 수상 동지로부터 과업을 받은 주인공이 갑산 지구에 와서 조국 광복회망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처음으로 승리하는 긴장된 투쟁을 취급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주제적 과업을 다하기 위하여 주인공의 성격에 혁명과 수령에 대한 충직성,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신념, 항상 뒤따르는 원쑤들을 앞질러 매사를 처리해 가는 슬기로운 지혜 등을 주로 부각함으로써 청년 시절의 박 달 동지를 훌륭히 형상화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작가의 미학적 리상과 예술적 독창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열매이다.

《청년 시절》의 이와 같은 창작 경험은 다른 작가가 만일 박 달 동지에 대하여 글을 쓸 때 그는 주인공이 지니고 있던 성격적 특성 중에서도 몇 가지 측면만을 주도적으로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어떤 작가는 례를 들어 그의 옥중 투쟁에 중점을 두면서 강의성,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 원쑤들을 압도하는 공산주의자의 정신적 높이 등을 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력사적으로 이름난 인물에 대한 형상 창조에서의 여러 가지 변형들은 결코 해당 작품들이 서로 구별되는 사실들을 취급하고 있는 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작가의 미학적 리상과 예술적 독창성이다.

희곡 《청년 시절》의 주인공은 원형이 그런 것처럼 소박하고 혁명적이다. 그런데 이 소박성과 혁명성은 결코 주인공의 외형적 특성—의상, 초상 등으로써만 구현될 수 없다. 여기에는 외형적인 특징과 함께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려는 작가의 진지한 탐구와 노력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방금 혁명의 수령과 첫 상봉을 하고 밀영의 휴식터에 나온 주인공의 흥분된 정신 상태를 전달하는 첫 장이나 마지막 장에서의 주인공이 키운 청년들을 국내 깊이 공작원으로, 빨찌산 대원으로 보낼 때의 주인공의 기쁨에 넘치는 대사와 행동 등에서 표현되는 소박성, 혁명적인 정열 등은 그것을 너무나 잘 말해 준다. 우리는 또한 첫 장면들을 통하여 수령에 대한 주인공의 다함 없는 흠모의 정과 충직성, 그이께서 맡겨 준 첫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한 긍지 등 흥분된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감득한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소박한 형식으로 전달하는 데 익숙한 작가의 능란한 필치, 소박한 생활 속에서 서정적인 것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 작가의 고유한 미학적 관점 등이 원형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질들과 하나로 결합된 데 있다.

희곡 《조국의 아들》에서도 이것은 특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작품도 역시 실재하였던 력사적 인물 마 동희 동지의 생애와 관련된 전기적인 작품으로 소년 시절로부터 혁명투쟁의 마지막 시기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은 혁명과 수령을 위하여 충직하면서 동시에 락관적이며 한시도 쉽을 모르는 정열을 지닌 인간이다. 여기에도 주인공의 원형이 지닌 성격적인 일련의 특성과 작가의 의식적인 예술적 강조, 작가가 원형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랑만적 정신 세계에 대한 공감 등의 결합이 원칙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이와 같은 실례는 작품의 여러 군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작품의 첫 장에서 주인공이 억울하게 출학 처분을 당하게 된 뒤에도 락심하지 않고 동무들과 함께 묘목을 심는 장면(방금 전에 본 일제의 란벌 사건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혁명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투쟁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는 이른바 지도자인 《리 선생》이 체포되였을 때 일시 난감해 있는 주인공의 귀'전을 울리는 농악 소리(주인공이 조직한 운동회장에서 울리는 농악 소리이다) 등은 주인공의 혁명적 락관주의와 쉼 없는 정열을 상징해 준다.

주인공의 투쟁 활동에서의 극적인 전환—낡은 투쟁에서부터 새로운 적극적인 투쟁에로 발전하는 과정을 작품은 주인공이 《리 선생》한테서 받은 안경을 벗는 것과 운동회장에서 울리는 농악 소리로써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이 효과적인 디테일들은 주인공의 비약해 가는 정신적 움직임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자(관람자)들은 항일 빨찌산으로 들어 가는 주인공과 더불어 흥분하며 손에 무장을 잡고 원쑤들을 맞받아 나아가는 그의 영웅적 투쟁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이러한 실례는 작가가 력사적 인물의 성격적 특성에 기초하면서 그에 의하여 탐구되고 공감된 주도적 측면들을 자기의 미학적 리상과 예술적인 독창성으로써 강조하고 부각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희곡 《청년 시절》, 《조국의 아들》은 또한 력사적 사실을 취급함에 있어서 부차적이며 우연적인 사건들을 대담하게 없애고 본질적이며 의의 있는 사건들을 선택하여 주인공의 성격 발전을 재촉하는 계기들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적이다.

력사적인 사건들과 주인공들의 성격간의 관계는 이미 엥겔스가 라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정식화하였다.

엥겔스는 작가들이 우연적이며 부차적인 사건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며 바로 자기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시대의 주도적 흐름 속에서 자기의 위치와 투쟁의 필연성과 행동의 계기를 찾게끔 할 때만이 진정으로 력사적이며 사실주의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희곡 《조국의 아들》, 《청년 시절》의 경험은 귀중하다.

《조국의 아들》에서는 일제의 조선 침략으로 빚어진 탄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싸움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였던 주인공을 비롯하여 그의 아버지, 삼촌, 누이 동생, 안해, 마을의 가난한 소년들 그리고 다른 편으로 악질 교원 조영진, 부자'집 아들 오 천식, 변절자 김태선 등 그의 계급적 처지로 보아 일제의 주구로나 혁명의 배신자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의 운명을 시대의 본질 속에서 선명하게 보여 주고 었다.

주인공이 처한 력사적 환경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자각하고 열렬한 투사로 성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너무도 이른 소년 시절부터 벌써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 그것은 학기 말 시험에서 주인공이 첫 자리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이 부자'집 아들 오 천식을 상급 학교에 보낼 작정으로 주인공의 성적을 낮춘 사실과 관련된다.

담임 교원의 이 비렬한 행위는 주인공에게 분격과 충돌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백 번 죽어도 옳은 것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어릴적부터 아버지에게서 배워 온 주인공은 담임 교원의 이런 비렬한 행위를 참지 못 하고 정면으로 맞서게 되며 결국 그러한 데서 더 배우는 것을 거절하고 학교를 뛰쳐 나온다.

이 단순한 사건은 주인공의 성격 발전에서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였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는 담임 교원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동희더러 사죄하라고 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아버지, 아버지가 하라면 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항상 사내 대장부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목에 칼이 들어 와도 끝까지 내밀 줄 알아야 한다구 가르쳤지요? 옳은 것도 옳다구 못 하고 비겁하게 머리를 굽실거리며 살 바엔 차라리 절'간이나 찾아 가서 중이 되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저는 비겁하게 살구 싶지 않습니다》고 대답한다.

이리하여 주인공은 미구에 검은 탁류를 헤가르며 나아갈 자기의 길을 찾아 반일 운동에 참가하게 되며 뒤'이어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

불사조의 용맹을 떨치는 공산주의자로 발전한다.

이와는 달리 희곡 《청년 시절》에는 주인공의 성격 발전에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특별히 강조된 계기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 작품도 전편을 찬찬히 살펴 보면 그 계기가 엄연히 주어져 있다. 야학과 기타 각종 형태의 투쟁을 통하여 청년들과 각계 각층 군중을 조국 광복회 조직망에 묶어 세우는 비상한 열정과 확신에 찬 혁명 사업은 바로 회샤즈거우 밀영에서의 김 일성 동지와의 상봉이라는 력사적 계기에서 출발한다. 이런 사정은 작가가 이 희곡을 초기에 《첫 기쁨》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만을 상기해도 주인공의 성격 발전의 계기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또 그것이 무엇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기적인 작품들은 주인공의 성격 발전을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고(이미 널리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니까 구태여 보여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잡다한 사건과 무성격적인 정황 속에 파묻어 버리고 있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주인공의 《요람》하고 《눈부신》 투쟁에 그만 머리가 어찔하여질 뿐 아무런 흥미도 없는, 사적을 통하여 벌써 다 알고 있는 정도 밖에는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 한다. 희곡 《공산주의자》가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는 주인공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이며 전투적인 인물들로 설정되여 있다. 그러나 성격 발전의 계기를 력사적 흐름 속에서 찾지 못한 작중 인물들은 적지 않게 무개성적 결함을 피할 수 없었다. 일례로 장백현 면장인 리 취라는 인물은 그 직책으로 보아 일제와 결탁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는 주인공과 마을 사람들의 편에 서 있다. 작품은 응당 면장인 그가 어찌하여 인민의 편에 설 수 있었는가를 똑똑히 밝혀야 했을 것이다. 사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백현의 한 면장이 인민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작품에도 응당 인민의 편에 서 있다는 식이다.

인물의 행동을 조건 짓는 계기에 대한 소홀한 태도는 주인공의 형상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주었다. 작품에는 주인공과 관련된 사건들로써 빨찌산들에게 보낼 원호 물자를 비밀리에 장만하는 것, 빨찌산들의 국내 공작을 협조하는 것, 재판정에서의 주인공의 투쟁 등이 설정되여 있으나 모두가 주인공의 활동 년보를 보여 주는 일반적인 사건으로 되였을 뿐 주인공의 정신 도덕적 높이와 심리 세계를 부각하는 극적 계기로는 되지 못 하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교훈은 작가가 제아무리 시대적인 흐름에서 특징적인 사건들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사건들 속에서 주인공의 성격 발전의 계기를 찾지 못 할 때에는 주인공의 형상 창조에 아무런 새것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력사적 인물 형상에서 중요한 것은 사료에 대한 깊은 연구, 력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판단력 뿐만 아니라 해당 시기 인간들의 고유한 사고 방식,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하는 작가의 능력이다.

력사적 주제의 작품은 해당 력사적 시기를 반영하는데 필요한 생활 풍습, 옷차림, 살림 도구 등의 생동한 재생을 요구하며 특히 주인공들의 사고 방식, 언어 등을 통하여 그들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발현될 것을 요구한다.

희곡 《조국의 아들》에서의 주인공의 아버지는 우리 문학이 창조한 아버지들의 가장 특출한 형상으로 1930 년대를 대표하는 조선의 아버지들의 전형이다.

둘도 없이 귀중한 아들을 키워 조국의 광복을 위한 싸움의 길에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는가.

이러한 아버지였길래 아들이 체포되였다는 소식에 그렇듯 슬퍼하며 기둥을 부여 잡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가 지금 맛보고 있는 슬픔이 집에 남아 있는 어머니와 딸에게 영향을 줄가봐 의지적으로 억제하며 눈물 한 점 보이지 않고 체포된 아들에게 보다 굳세인 힘을 주려고 면회를 떠난다.

이렇듯 아버지는 1930 년대 조선의 아버지들의 전형으로서 형상되였는바 그것은 중요하게 작가가 당시의 아버지들의 고유한 사고 방식, 자식들에 대한 사랑의 형식 등을 발굴한 것과 관련된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희곡 《조국의 아들》, 《청년 시절》은 실재한 인물들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일련의 미학 리론적인 문제들을 해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에는 력사적 인물의 형상 창조에서 아직 해결을 요하는 일련의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력사적 인물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사실들과 예술적 일반화의 문제이다.

력사적 인물을 취급하는 작품에 있어서 실제 인물의 생애에서 일어 난 중요한 사건들과 사변들은 필연적으로 작품에 인입된다.

그것은 력사적 인물의 형상 창조는 원형의 생애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가 일단 창작적인 문제로 제기될 때에는 왕왕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 나군 한다. 즉 주인공을 이러저러한 사건들에 참여시키며 또한 그의 생애에 있은 사건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야만 마치도 그의 성격적 면모를 충분히 보여 준다고 하는 경향이다.

창작 경험은 이러한 경향에 떨어질 때에는 사료의 라렬에 불과한 단순한 이야기로 된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기적인 작품에 있어서도 주인공의 다양한 성격과 전기적인 내용은 잡다한 사건들 속에서 해명되는 것이 아니라 력사적인 흐름에서 선택된 중요 사건(그것도 주인공의 성격 발전의 계기를 풍부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사건)에 의하여 예술적으로 일반화되여야 한다.

《조국의 아들》의 첫 장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사건들—초롱 속에 가두어 넣은 산'새를 날려 보내는 장면, 왜놈 감독이 자기 집 웃방에 들었다고 하여 울바자를 옮기는 것 등 그 자체로서는 흥미 있고 의의가 있으나 주인공과 담임 교원과의 긴장된 충돌을 부각하여야 할 극의 흐름에서는 불필요한 군더더기로 되여 있다.

전기적인 사실들에 대한 예술적인 일반화에서 극 작품의 경우 등장 인물들이 얼마만큼이나 극적인 정황 속에 놓이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전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일지라도 그것이 예술적인 작품으로 되자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단순한 작가의 전성관으로서가 아니라 극적 사건 속에서 작품의 슈제트 발전과 해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즉 등장 인물들은 무개성적인 《군중》이 아니라 개성을 가진 인물일수록 작품의 사상은 더 깊이 있고 무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청년 시절》에는 아직도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상에서 고찰한 문제들에서 교훈을 찾으면서 력사적 인물을 훌륭히 형상화한 더 많은 작품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의 미학적 요구에 보답하여야 한다.

추상주의 미술의 본질

한 상 진

오늘날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술을 비롯한 예술 분야에서도 극도로 반동화되였다.

그들은 미술이 근로 대중으로 하여금 모순과 죄악으로 가득찬 자본주의적 현실을 똑바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오직 방탕과 타락에로만 이끄는 각종 퇴폐적인 형식주의 미술 조류들을 류포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 류포되고 있는 형형색색의 부르죠아 미술 조류 가운데서 가장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것은 이른바 추상주의 미술이다.

인류의 진보적인 예술가들에 의하여 이룩된 미술의 제 원칙들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구체적인 현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부호로 대체하고 병적인 환상, 환각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추상주의 미술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호만한 생활 속에 파묻혀 온 억만 장자들의 극도로 추잡스러운 몰취미를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극도의 허무주의와 인간 증오 사상을 설교하는 실존주의를 비롯한 부르죠아 반동 철학을 바탕으로 그 병적인 환각의 세계가 더욱 조장되고 있다.

추상주의 미술의 이런 반동적 본질로 하여 그것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라파 자본주의 국가들과 그 영향 하에 있는 나라들에 광범히 류포되여 사람들의 건전한 리상과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놀고 있다.

특히 오늘 추상주의 미술은 미제의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에 류포되여 사람들에게 퇴폐한 부르죠아적 취미를 주입함으로써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며 그들의 민족적 자의식과 계급 의식의 각성을 저애하는 극도의 해독적인 작용을 놀고 있다.

주체 사상이나 민족적 량심이란 편린도 없는 남조선의 반동적 화가들은 조선 인민의 생활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추상주의 미술을 맹목적으로 본따면서 심지어 《자기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기괴망칙한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 그 어떤 신비로운 것이나 있는듯이 떠들어 대고 있다.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화면에 몇 가닥의 선을 기이하게 그은 《작품 7》이라는 괴이한 《그림》을 《특선》 작품으로 추천하면서 《이 작품의 핵을 이루는 것은 바로 멍한 점, 이것이 그의 예술적 내용을 형성한다》고까지 떠벌리고 있다.

그리하여 원래 보잘 것 없는 남조선의 화단은 추상주의 미술의 란무장으로 화하고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세계 회화사를 장식하여 온 조선화의 전통은 남조선에서 여지 없이 유린 모독되고 있다. 송 모라는 자는 흰 종이 우에 검은 먹과 짙은 청록색 빛갈을 막 뿌려 놓은 《환상》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남조선의 반동적 화가들은 이것을 《조선화에서의 혁신을 의미하는 걸작》이라고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추상주의 미술은 부패 타락한 《부르죠아적 생활 양식》의 형상적 반영인 동시에 그것은 현실과 인민 생활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정신병자의 착각을 화면에 옮겨 놓음으로써 인민들, 특히 청년들의 건전한 미학적 리상을 마비시켜 그들이 현실의 진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며 오직 제국주의자들에게만 순종하는 노예, 추물을 길러 내는 데 복무하고 있다.

추상주의 미술은, 생활의 진정한 미와 의의를 밝힘으로써 근로자들을 보다 행복한 래일을 위한 투쟁에로 부르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과는 량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적이다.

그러므로 추상주의 미술의 발생 근원과 그의 추악한 본질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을 발전시키며 인민들 속에서 건전한 미학적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미술 조류이거나를 물론하고 그것을 낳게 한 일정한 생활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르죠아 형식주의 미술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가 더욱 심각화되고 부르죠아지가 이미 사회 발전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된 그러한 력사적 환경에서 산생되였다.

추상주의 미술은 각양 각색의 부르죠아 형식주의 미술에 내포되여 있는 온갖 추잡하고 반동적인 요소를 계승하면서 자신의 림종을 감촉하기 시작한 제국주의자들의 공포와 불안, 생에 대한 허무와 타락을 반영한 미술 조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추상주의 미술은 전면적인 쇠퇴 몰락과 붕괴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그것은 추상주의 미술이 제국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가일층 심각화되던 제 1 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후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자본주의 여러 나라에 광범히 류포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 평론가들은 미술의 전 력사는 사실주의적 미술로부터 《립체파》, 《추상파》 등 형식주의 미술에로의 이행의 력사이라고 하면서 추상주의 미술의 발생 근원을 합리화해 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추상주의 미술 자체가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거기에서는 사실주의 미술이 계승 발전시켜 온 그 어떠한 요소나 법칙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으며 그것 없이는 미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미술의 초보적 규칙마저도 저버리고 있다. 따라서 추상주의 미술은 사실주의 미술과는 철저히 대립된다.

그러면 이러한 미술 아닌 미술이 과연 어떠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제국주의 시기에 이르러 근로 대중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로 부르죠아 억만 장자들은 이미 벌써 비대할 대로 비대해지고 포만의 극치에 이르렀다. 끝없이 련속되는 방종한 생활 속에 파묻혀 온 그들에게서 정상적인 인간적 취미가 사라져 버린지는 이미 오래다.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포식, 음탕, 범죄까지도 더는 그들의 관능적 향락과 동물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였다. 온갖 것에 마비되고 싫증을 느껴온 그들의 감각을 새삼스럽게 자극할 만한 현실적 물체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포만하고 방종한 생활은 이제는 그들에게서 향락이 아니라 생에 대한 허무감을 자아내기 시작하였으며 극도의 비인간적 몰취미를 추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벌써 현실적인 물체에서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에서, 병적이고 비정상적인 환각의 세계에서 자기의 관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였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 시기에 와서 부단히 반복되는 경제 공황, 로동 계급의 진출 기타 자본주의 세계를 밑바닥으로부터 뒤흔들어 놓는 일련의 세계적인 사변으로 하여 억만 장자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였다.

그들의 이러한 불안한 생활과 요구를 반영하여 발생한 것이 추상주의 미술이다. 거기에서의 온갖 병적인 환상과 환각, 극도로 비현실적인 추상의 세계는 그들의 바로 이와 같은 생활적 조건과 련결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추상주의 미술이 사실주의 미술과 철저히 배치되는 몇 개의 측면을 고찰하여 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예술적 형상이 미술의 기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에게 거대한 미학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진실한 예술적 형상은 오직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형태에서, 가장 완전한 사물 자체의 형식을 통하여 창조된다.

각이한 시대의 모든 훌륭한 미술 조류들은 구체적인 현상들의 진실한 묘사를 심화하며 비록 거기에는 일반화의 심도와 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모든 예술적 형상의 기초에는 생생한 현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미술이 사회와 인간에게 주는 거대한 역할도 개별적 작품들에 구현된 생활적 진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추상주의 미술가들은 사물 현상을 본질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을 반대하고 주관적인 추상의 세계를 그리기 위해 물체를 제멋대로 해체하며 화면 구성에 필요한 대로 《순수한》 색채와 형태를 날조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작품에서는 현실적 물체에는 전혀 방불치도 않는 원, 면, 선 등이 되는 대로 라렬되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도대체 무엇을 그리자고 한 것인지 전혀 리해할 수 없는 기괴망칙한 것이 그려져 있다.

례컨대 추상주의 미술의 대표자인 독일의 크레의 그림 중에는 《모래 우의 식물들》이라는 그림이 있다. 화면은 적, 황, 록, 분홍색을 주로 하는 대소 사각형을 마치 장기판처럼 라렬한 것이다. 이 그림의 표제 내용과 관련된 풍경은 화면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그려진 것은 다만 일정한 색채를 가진 사각형으로 된 기하학적 형태의 라렬 뿐이다.

크레의 이 《작품》은 《설명적이며, 삽화적이며, 문학적이며, 사실주의적인 요소를 깡그리 없앤 순수 조형을》 날조하며 《자연의 제 형태를 추상화하여 기하학적 질서 또는 원, 면, 선 등 추상적 요소로써 화면을 구성한다》고 하는 추상주의 미술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으로 된다.

현실적 사물의 형태를 화가의 주관에 의하여 제멋대로 파괴 해체하는 추상주의 미술의 이러한 경향은 일찌기 19 세기 하반기에 진보적인 사실주의 미술을 반대하여 나선 인상주의 미술에서 시작되였다.

인상주의 미술의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불란서의 모네는 《버'날가리》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는 자연을 일반화하는 데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 다만 태양 광선을 받는 버'날가리의 색채적 효과만을 전달하려 했다. 때문에 화면에서는 자연의 물체와는 아무 관련성도 없는 원색만이 눈에 띄운다.

초기의 인상주의 작품에는 생활 장면을 묘사한 것도 있으나 그것은 극히 우연적이며 단편적으로 취급되여 있을 뿐 외형적인 광선의 효과만을 일반적으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생활에 대한 일반화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벌써 력사적 사변들과 생활적 진실로부터의 이들의 완전한 리탈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세잔느 등의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서 한층 조장되였으며 제국주의의 부패 몰락이 더욱 심각화됨에 따라 련'이어 발생한 《립체파》, 《야수파》, 《미래파》, 《표현파》. 《초현실파》 및 기타 그 변종들의 화가들의 작품들에서 한층 로골화하였다.

추상주의 미술은 이 모든 형식주의 미술의 부정적 경향을 광란적으로 강조하면서 특히는 《초현실주의》의 가장 반동적인 요소를 직접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런 데로부터 각종 부르죠아 형식주의 미술 조류들은 아무리 제각기 각이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같이 실재하는 물체와 현상들과는 하등의 련관이 없는 부호, 표식, 색채를 화가의 주관으로 조작하며 전혀 리해할 수 없는 추상의 세계를 그린다는 데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람을 그린다는 것이 인체의 한 토막을 그리거나 얼굴이 둘 있는 사람을 그리며 한갖 말초 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해괴망칙하고 징그러운 비현실적인 물체를 고안해 내며 때로는 알록달록한 천조각과 같은 것을 착잡하게 라렬해 놓거나 물 우에 떨어진 잉크를 복사해 놓고 거기에 그 어떤 신비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 댄다.

례컨대 《야수파》의 대표자로 평가되고 있는 불란서의 루오의 《부인상》이라는 그림을 보기로 하자.

한 녀인의 반신상이 표치되여 있는 이 그림에는 남녀의 성별이나 또는 산 인간인지 죽은 인간인지 구별할 수조차 없는 추상적인 물체가 묘사되였다. 다만 거기에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기 위

한 자주빛깔의 넓은 색층, 검은 색과 붉은 색을 섞은 혼탁한 색조, 둔하고 투박한 검은 선들이 그려져 있다. 이런 침울하고 칙칙한 색감은 검푸른 배경에 의하여 더욱 조장되였다.

화가는 조형적 수단들을 며인의 반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물과는 전혀 분리된 《순수한》 형태 구성을 위한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고 였다.

이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며 인간이 가진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인간 증오 사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병적인 경향은 생활에 대한 철저한 불신임과 반역을 표방하고 나선 이른바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화가들에 의하여 더욱 광란적으로 강조되였는데 그들은 화면에 신문 쪼각, 상표, 세루로이드, 철사, 나무, 유리 조각, 사람의 머리털을 무질서하게 붙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례컨대 《다다이즘》의 중심 인물인 미국 화가 망 레이의 《저고리》라는 그림을 보기로 하자. 이 화면에는 상부에 둥근 초인종을 두 개 포치하고 하부에는 악보에 쓰이는 고음부와 초인종 단추를 그렸고 화면 한가운데 릉형으로 된 흰 여백에는 손'도장을 찍었다. 이러한 괴이한 화면이 저고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완전히 정신 병자의 부질 없는 발작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서반아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다리의 《가을의 사람 고기 먹기》라는 끔찍한 제목을 단 그림에는 조리'대 우에 갈기 갈기 찢은 인체의 토막을 쌓아 올린 광경이 그려져 있다.

다리의 일련의 그림들 중 하나의 대상에서 이중 삼중으로 별개의 영상을 보는 병적 착각을 반영한 것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환각, 광기와 같은 이상 심리가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산생된다》는 이른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반동적 학설을 회화 예술에서 직접 표현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그림들에는 극도의 허무주의에로 전락하여 생활과 인간은 물론 인류가 축적한 모든 고귀한 가치를 철저하게 부인하며 현실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에 질겁한 자들의 심리적 작용이 그대로 반영되여 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제국주의의 부패성과 모순이 보다 심각화된 미국에서 가장 광범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러한 그림은 보는 사람들에게 미'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는커녕 반대로 혐오감과 번잡성, 착각을 환기시킬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의 진정한 흐름을 모르게 하며 보다 행복한 새 생활 창조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그 어떤 신비로운 조화의 힘 앞에서 한 평생 굴종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극도의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고취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추상주의 미술가들은 이러한 번잡성, 착각, 병적 심리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처음부터 화필을 전혀 쓰지 않는 괴이한 기법을 도입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기법은 각이한 미술 쟌르를 구별하는 기본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실주의 미술에서의 기법은 그 어떤 것이나를 물론하고 다 같이 객관적 현실을 보다 진실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데서의 차이로 될 뿐이다.

추상주의 미술의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이다. 사물을 구체적 감성적 형태에서 반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추상주의 화가들은 현실을 극도로 외곡하고 될수록 착각된 환상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종 기괴한 기법을 리용한다.

심지어 그들은 츄브에 든 안료를 짜서 그대로 화면에 마구 바르며 때로는 손'바닥에 발라서 뭉개거나 지어는 산말꼬리에 안료를 발라 화포를 대고 칠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작품에서 개별적 화가들의 개성적 풍격이나, 민족적 특성은 처음부터 문제로도 제기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다만 누가 보다 추상적인 조형적 언어를 조작하는가 하는 것만이 문제로 되며 그러한 데 따라서 작품은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추상주의 미술의 반인민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성격이 명백히 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의 구체적 형상적 반영을 부인하는 추상주의 미술은 예술 작품의 객관적 내용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그들은 미술이 사실을 확정하고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에게 강한 생리적 자극만 주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술에서의 규정적 의의를 갖는 세계에 대한 인식 기능 즉 미학적 작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데로부터 추상주의 미술가들은 공공연하게 《생활과 자연으로부터의 철저한 리탈》을 선포하며 객관적인 내용과는 완전히 절연된 《순수 조형적인 요소인 점, 선, 면, 순수 색채를 구사하여 절대미를 표현할 것》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미술을 《리성에 의한 일체 통제와 미학적 및 륜리적인 모든 선입관에서 완전히 벗어 난 순수 사유의 진실한 반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화면이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리해할 수 없으며 그것이 마치 정신병자의 광란적인 이상 심리의 발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추상주의 미술의 이러한 주장이 추구하는 목적은 명백하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 《추악한 것》 등 미학적 개념을 아무런 실재적 내용도 반영하지 않는 한갖 예술가의 주관적 표식에 불과한 것으로 선포함으로써 그것들을 완전히 동일시하며 인민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리상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미술 작품의 객관적 내용을 거부하는 추상주의 미술의 계급적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다.

✻ ✻

이상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추상주의 미술은 철저하게 반인민적 반사실주의적 미술이며 인민 생활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자본주의적 사회악의 부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발생 초기부터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건전한 사회계의 철저한 버림을 받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술을 비롯한 모든 예술의 힘은 그것이 인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적 로동의 의의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며 진정으로 보람 있는 새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로 추동하는 데 있다. 18 세기 우리 나라의 탁월한 화가들인 단원 김 홍도나 혜원 신 윤복에 의하여 그려진 사실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화폭들과 해방 후 시기의 우리 회화들이 그토록 우리 근로자들의 미학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 크나큰 힘의 원천도 바로 이 회화들이 생활의 진정한 미를 해명해 주며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리상을 밝혀 주는 그 높은 사상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추상주의 미술은 사람들에게 승냥이 도덕을 강요하며 생에 대한 허무, 굴종의 사상을 고취하면서 그들의 건전한 리성과 정서 생활을 침식하며 헤여 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 평론가들과 일부 수정주의적 견해에 물젖은 미술가들은 추상주의 미술이 마치 그 어떤 《새로운 혁신》인듯이 떠들면서 그것을 류포시키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추상주의 미술은 전망을 잃고 죽음을 감촉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부패한 계층들,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과 굴종의 노예로 된 그러한 사람들, 아무런 리상도 없이 한갖 수전노의 가련한 운명에 떨어진 자들 속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류포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건전한 생활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이 확고하게 발전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자기의 바탕을 마련하지 못한다.

살인, 강도, 공포와 불안의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 낸 추악한 오물인 추상주의 미술의 운명은 박두한 제국주의자들의 최후 운명과 때를 같이 할 것이다.

—

문답학습

새것의 불가극복성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은 끊임 없이 운동하고 변화한다. 그런데 만물이 변화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에로 이동한다든가 혹은 단순히 파괴되여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만물이 변화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선 그 무엇인가 낡아져서 소멸하고 그 대신 새로운 그 무엇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인류 력사의 발전 과정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즉 인류 력사는 원시 공동체 사회로부터 노예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매개 사회 제도의 교체는 먼저 있은 제도가 상승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에 가서는 하강선을 그으면서 낡아지고 그 토대 우에 또 새로운 사회 관계가 발생하고 발전하여 그것이 승리하여 오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물의 변화란 매개 사물 자체에 있는 호상 배제하고 대립하는 두 측면, 두 경향 간의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그것은 진보와 보수, 적극과 소극, 발생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 총체적으로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을 통하여 한 측면이 다른 측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립물의 통일체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물질 세계의 운동, 변화, 발전이란 낡은 것 속에서 새것이 부단히 발생하는 과정이며,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것이 부단히 승리하는 과정이다.

새것이란 발전을 담당하는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측면이며 낡은 것이란 발전을 저애하는 **반동적**이며 **보수적**인 측면이다.

사물 현상에 고유한 서로 대립되는 두 경향, 두 측면, 두 힘들 간의 투쟁에서 낡은 것의 소멸과 새것의 승리는 사람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사람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물 자체 발전의 내'적 요구로부터 흘러 나오며 물질 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들의 운동과 변화는 다 자기 발전에서 새것에 의하여 낡은 것이 극복되는 필연적 과정이다.

그러면 새것은 왜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소멸하는가?

그것은 우선 새것이 사물 발전의 합법칙적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매개 사물은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모순되는 측면들의 통일체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모순되는 측면들은 서로 투쟁하는만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본래의 통일은 파괴되고 다른 새로운 통일을 이루게 된다. 사물 발전의 내'적 요구로부터 발전 능력이 있고 발전의 담당자로 되는 새것은 자기의 제대를 다 산 낡은 것을 타승한다. 로동

계급이 낡은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로동 계급이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합법칙적 산물이며,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생산력 발전의 요구와 새로운 생산 방식의 담당자라는 데 있다.

《낡은 봉건 사회가 멸망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발생 발전한 것처럼 자기 세기를 다 산 자본주의 제도가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 제도에 자리를 내 주어야 하는 것은 항거할 수 없는 발전의 법칙입니다.》 (김 일성 선집, 제 6 권 133 페지)

새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또한 발전 행정에서 선행 단계의 낡은 것 속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낡은 것을 부정하고 새것이 발생 발전하는 과정은 단순히 낡은 것을 없애 버리거나 덮어 놓고 짓밟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물 발전에서 새것이 승리하는 중요한 계기의 하나는 낡은 것 속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데 있다. 물론 이 계승은 낡은 것의 새것에로의 단순한 기계적 이동이 아니라 낡은 것에 대한 혁명적인 개조를 통한 계승이다. 승리한 사회주의가 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룩된 생산력을 리용하는 것이나 우리 당이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허무적인 태도를 배격하고 우리 선조들이 남긴 우수한 민족 문화 유산을 계승하여 오늘과 같은 훌륭한 민족 문화 예술로 개화 발전시킨 것은 이에 대한 실증으로 된다.

새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반면에 낡은 것은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더욱더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구 상에서 생명이 발생 발전한 과정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지구 상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의 결합에 의하여 단백질에 가까운 것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점차 발전하여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발생하였다. 최초에는 생명이 없는 물질로부터 생명이 출현하는 이 과정은 많지 않은 개별적인 사실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자 출현한 이 새것인 생물은 그 조건에 더욱더 잘 적응하면서 성장 발전하여 지구의 전체 표면을 덮게 되였다.

새것이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불가극복적이라 하여 이 과정이 아무런 투쟁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례컨대 인류 력사 발전에서 보다 높은 사회 구성태에 의한 낮은 사회 구성태의 교체 과정들이 치렬한 계급 투쟁을 동반한 것은 바로 이것을 실증해 준다.

우리의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은 장기간에 걸친 피어린 투쟁 속에서만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무장을 들고 일제와 싸웠으며 미제와 싸웠다. 우리는 오늘도 투쟁 속에서 우리의 이 새 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또 투쟁 속에서만 남반부 인민들까지 해방할 수 있다.

발생한 새것은 처음에는 미약하며

때로는 낡은 것에 의하여 질식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새것이 방금 발생하였을 때에는 낡은 것이 언제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력량은 얼마 동안은 새것보다 강한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과 관련하여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새것의 승리는 때로는 일시적인 후퇴와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는 간고한 투쟁인 것이다. 그러므로 레닌은 《… 세계사가 때때로 되는 거대한 뒤로의 비약이 없이 순조롭게 그리고 정확히 앞으로만 나아간다고 상상하는 것은 비변증법적이며 비과학적이며 리론적으로 옳지 않》다 (레닌 전집, 제 22 권 404 페지) 라고 교시하였다.

낡은 것에 대한 새 것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소여 사물과 현상들의 질적 특성이 각이하며 환경과 조건이 서로 다른 것과 관련되여 있다.

크게 보아 자연에서와 사회에서의 낡은 것과 새것의 투쟁이 다르고 사회에 있어서도 적대적 계급 사회에서의 그것과 적대적 계급들을 청산한 사회주의 사회의 그것이 또한 구별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낡은 것에 대한 새것의 승리는 적대적 계급으로 구성된 계급 사회에서와 같이 폭력적 류혈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 여기서는 새것을 반영하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로서 낡은 것을 부정 극복하며 또한 해설과 설복, 비판과 자기 비판의 방법으로 낡은 것의 극복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착취 계급이 청산되였고 오직 리해 관계의 공통성을 가진 근로하는 우의적인 계급과 계층들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낡은 것에 대한 극복이 결코 투쟁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투쟁의 형식과 방법이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여 달라진 데 불과한 것이다.

새것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전진을 장애하고 있는 낡고 보수적인 것을 부단히 제거하고 새것을 조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은 곧 온갖 낡은 것을 분쇄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입니다.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 적극과 소극과의 투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 총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이것이 우리가 하는 혁명 투쟁의 내용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는 온갖 낡고 부패한 것을 쓸어 버리는 과정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 일성 선집, 제 6 권 130 페지)

우리 당이 천리마 운동을 적극 조장하여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로 불러 일으켰으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을 저애하는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극복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것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새것을 적극 지지하며 옹호하여 주는

것이며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물과 현상의 복잡한 그물 속에서 새것을 옳게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복잡한 사회 생활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옳게 갈라 내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새것은 처음에는 미미하거나 다만 경향성, 가능성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것은 낡은 것 속에 가리워 있는 경우도 많으며 낡은 것이 자기 생명의 유지를 위해 새것으로 가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새것은 책상 머리나 일'군들의 머리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부단히 운동 변화하는 현실 속에 있다. 따라서 새것을 찾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현실 속에 들어 가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중에 튼튼히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며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일'군들이 사회 발전 법칙을 깊이 인식하고 객관적 현실과 자기 사업을 옳게 분석할 줄 아는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새것을 발견하고 그를 적극 조장하는 기본 고리이다. 새 싹을 발견하고 그를 적극 지지 옹호하며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 사업의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추을 아마 공장에서 한 점의 불 꽃을 발견하고 그 새 싹을 전국에 일반화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 창성군의 모범을 산지대 농촌에 일반화한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새 것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생산과 건설 행정에서 우리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들이 제기하는 긍정적 의견, 합리화, 창의 고안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며 그를 적극적으로 발양 조장시키며 발전시키는 것은 새것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의 하나로 된다.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긍정적 모범의 힘으로써 부정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것의 승리를 조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 있는 방법이다.

낡은 것이 멸망하고 새것이 승리한다는 진리는 우리의 생활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서 실증되고 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것의 불가 극복성에 대한 유물 변증법적 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만 혁명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난관과 애로 앞에서도 굴함 없이 전진할 수 있다.

김 기 준

현 시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예비는 어데 있는가

로동 생산 능률은 단위 시간 내에 생산된 생산물의 수량 또는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출된 로동 시간에 의하여 측정된다.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같은 로동량을 지출하고서도 단위 시간 내에 생산되는 제품의 수량을 보다 증가시킨다는 것, 달리 말하면 단위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지출되는 로동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 경제의 이러저러한 부문 혹은 기업소들에서 로동 생산 능률이 어떠한가 즉 높은가, 낮은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적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된 로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와 일정한 기간 내에서의 로동자 혹은 종업원 1 인당 생산고(현물 또는 화폐 표시의) 지표 등을 보아야 한다. 기업소들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특징 짓기 위하여서는 이 지표들을 다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단위 제품을 생산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는 데 투하된 로동 시간은 적어졌다 하더라도 전체 로동 시간 중 비생산적 손실이 많아지거나 보조 로동자 수가 증가된다면 로동자 1 인당 생산고는 증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로동자 1 인당 생산고는 증대되어도 가격 구성이 변동된 경우에는 단위 제품 생산에 투하된 로동 시간은 감소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적 방도로서는 기술 장비의 부단한 개선과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생산 및 로동 조직의 합리화,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 설비 리용의 개선,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광범한 조직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일'군들의 사상 의식을 높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싸우려는 로동자들의 고상한 사상이다. 이 사상만 있다면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성과적으로 해결된다.

이와 함께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 부문, 기업소들에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한다.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일반적 방도들 중 어느 것이 전면에 나서는가 하는 것은 매 시기에 따라서 또한 기업소들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면 현 시기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중요 예비가 어데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명천 직조 공장 로동자들은 기술자들과 협동을 강화하여 능률이 높은 작대 연사기를 창안 제작하였다. 물론 이것은 어데서나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한 개의 기술 혁신에 불과한 것이였다. 그러나 52 추의 가락이 달린 이 작대 연사기는 종전에 400 명의 가내 작업반원들이 꼬아 내던 방적사를 단 3 명의 로동자가 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막대한 로력 예비를 찾아 낼 수 있게 하였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도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의 고안한 174 건의 기술 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년 1만 4,579 공수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이 공장 발전기 직장 한 경두 작업반원들은 매듭식 복수 스빠나를 도입하여 견인 전동기의 조임 작업에서 매일 3 배의 능률을 올리고 있으며 주조 직장 윤 석보 천리마 작업반에서는 530 키로왓트 전동기 차축수금을 금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현저히 높이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창의 고안과 합리화 안들을 제기하고 손로동을 기계화하며 기계화된 공정은 자동화한다면 로동 생산 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 지방 공업 공장들을 비롯한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에는 아직도 큰 설비,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기계화할 수 있는 대상들 즉 손로동에 의하여 진행되는 부문, 공정, 작업들이 적지 않다. 가령 기양 뜨락또르 공장만 보더라도 직장 및 공정간 구내 운반 작업, 상하차 작업 등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만일 이 공장에서 구내 운반 작업만을 전반적으로 기계화하여도 3~4 명이 밀고 다니는 매 리야까마다에서 2~3 명의 로력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운반 속도가 훨씬 높아짐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술 혁신, 새 기술의 도입은 단위 제품의 생산 또는 단위 작업의 수행에 지출되는 로동 시간을 훨씬 단축시킴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결정적 담보로 되며 또한 여기에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거대한 예비가 있다.

다음으로 예비를 찾는 데서 로동 시간 리용 정형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매일 작업 시간 중에서 비생산적으로 리용된 로동 시간의 크기와

원인별로 되는 휴지 시간의 크기 등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합리적 리용을 위한 방도를 찾아 낼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준다.

례컨대 1962년도 1 인당 로동 시간 리용 정형을 본다면 기양 뜨락또르 공장이 91.3%, 평양 전기 공장은 81.9%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우선 하루의 로동일을 더 잘 조직한다면 더 많은 생산을 낼 수 있으며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큰 예비가 바로 조직 사업에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준다. 즉 조직 사업을 잘하여 그 리용률을 평균 95% 수준에까지만 높인다 하여도 로력의 추가 없이 기양 뜨락또르 공장은 104%, 평양 전기 공장은 115.9%로 각각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

조직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찾기 위하여 생산에 리용되지 못한 로동 시간의 크기를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에 리용되지 못한 로동 시간의 원인별 구성 (%) —평양 전기 공장

총 계	자재 부족	공구 불충분	공정 불합리	기술조건 불비	정전 및 기계사고	오작품	작업장 리탈	지 각	조 퇴	기 타
100.0	53.2	2.7	2.6	4.0	7.8	3.6	6.4	0.3	1.3	18.1

보는 바와 같이 평양 전기 공장에서는 자재 공급 사업에서의 결함까지 포함하여 공구 불충분, 공정 불합리, 기술 조건 불비 등 생산 조직을 잘 하지 못하여 랑비된 로동 시간이 전체 로력 랑비 시간의 62.4%나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산 조직의 개선에 현 시기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거대한 예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 조직의 합리화는 인민 경제의 매개 단위들에서 전체 로동력과 생산 수단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작업의 률동성과 일정한 균형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현저히 제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자재 공급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자재를 생산에 적극 선행시켜야 하며 기대공들과 공무 부문 일'군들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예비 부속품을 3 개월 이상 선행시키며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설비의 보수 및 기계 사고에 의한 작업 휴지 시간을 결정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랑비된 로동 시간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또한 로동 규률, 제도와 질서가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초래되는 것이다.

평양 전기 공장에서는 그것이 전체 로동 시간 랑비 중에서 17.5%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이 랑비 시간을 3분의 1로만 감소시켜도 로력 랑비 시간은 약 85%로 감소될 것이다.

이것은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 로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장성시킴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럼

만큼 정상적인 로동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작업반, 작업 장소의 합리적 조직, 기본 직종과 다른(보조 또는 린접) 직종의 겸임, 다기대 작업의 조직, 생산에서 로동력의 합리적 배치 등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로력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그들을 능력에 따라 적재 적소에서 일하게 하며 로력 류동을 근절하는 것은 현 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직접공의 비중을 높이며 남성 로력을 되도록 힘들고 어려운 로동 부문에 돌리고 녀성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문에는 녀성 로력을 대담하게 인입하며 일'군들이 작업장을 리탈하는 현상이 없도록 조직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짜고 들어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예비는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일'군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어떻게 근로자들을 예비 탐구에 의식적으로 동원하는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예비를 찾아 내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한 재 환

근로자 제 6 호 (루계 220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3월 20일　　인 쇄 · 1963년 3월 17일

ㄱ—330190　　값 40 전

서적 안내

맑스 엥겔스 선집 (1)

국판, 양장, 700 페지
근간 발행

맑스 엥겔스 선집(1)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1954~1955년에 2 개 권, 4 개 분책으로 출판하였던 것을 이번에 2 개 권으로 재판하는 것이다.

이 책을 재판함에 있어서는 쏘련 정치 도서 출판사 1955년 판을 대본으로 하였으며 매개 저작의 내용은 맑스 엥겔스 전집 (로문 판) 제 2 권에 의거하여 전면적으로 재교열하였다.

맑스 엥겔스 선집(1)에는 맑스주의의 세 가지 구성 부분인 철학, 정치 경제학 및 과학적 공산주의에 관한 맑스와 엥겔스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그 중요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맑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
맑스; 《임금 로동과 자본》
맑스; 《1848~1850년 불란서에서의 계급 투쟁》
맑스; 《루이 보나빠르트의 브류메르 18일》
맑스;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
맑스; 《임금, 가격 및 리윤》
엥겔스; 《맑스의 〈자본론〉》
맑스; 《불란서 국내 전쟁》
엥겔스; 《주택 문제에 관하여》 등등

이 책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